

특별기고

광주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를 다녀와서...



봉태규 배우

연기를 직업으로 삼고 있던 내가 글을 쓰고 싶다,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몹시 절박한 심정에서 올긴 행동이었다. 20대 후반까지 꽤 괜찮은 직업 배우로 지내던 필자는 30대부터 불행한 일들이 겹겹이 쌓여 순서도 없이 앓다뒹 찾아오고 있었다. 불행은 너무도 순식간에 나를 포위해 버려서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관통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버티려고 애썼지만, 결국 마음에 병이 생겨 버렸다. 그냥 그렇게 나를 놓아버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 즈음 아이러니하게도 살고자 하는 욕망도 함께 끓어올랐다. 결국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극단적인 생각을 짓누르고 삶을 버릴 방법을 알아내라고 스스로를 재촉하게 됐다. 그때 불현듯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소 독서를 즐기지 않았기에,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해야만 그것이 나를 자극하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거 같았다. 가장 절실한 순간에 발휘된 기지가 왜 책인지 아직도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책 읽기는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

왔고 나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매일 서너 권씩 책을 읽게 됐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들었을 때, '글쓰기'라는 또 다른 출구가 나를 찾아오고 있었다. 독서가 겨우 숨을 쉬게 해줬다면, 글쓰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몸부림이었다. 필자는 진분이 있는 공연 잡지에 부탁해 글과 그림이 있는 공연 에세이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정식으로 원고료를 받아 글을 쓰는 일은 처음이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원고료를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서와 글쓰기를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처음 지면에 소개가 되는 공연 에세이의 글을 위해서 수많은 공연을 관람했다. 어떤 작품을 주제로 글을 써야 할지 고민하며 핸드폰 메모장에 글을 써 내려갔지만, 제대로 된 글이 나오지 않아 조금만 마음이 커지고 있었다.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푸르른 날'이라는 연극을 관람하게 됐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시대를 뒤흔든 소용돌이에 휘말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우 현실적이고 극적으로 표현했다. 평범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제의 같은 하루가 당연하고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

듯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다. 그런 마치 긴 세월동안 간직하고 있던 그런 종류의 기억 같았다. 연극을 보는 내내 콧물을 훌쩍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필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날에서 정확히 1년 하루 뒤에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더욱 나의 일상이 그날의 광주 시민들의 일상과 겹쳐보였다. 드디어 잡지사에 보낼 첫 글의 주제가 정해졌다. 2014년 7월에 첫 원고를 잡지사에 넘겨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글을 쓰고 책까지 출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고 별이 여름을 재촉하는 6월에 광주 시민들을 만나러 무대에 갔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광주 시민들은 44년 전에 일어난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인문학과 축제, 무등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수많은 말과 말이 오가고, 갈무리가 될 즈음, 나는 글을 쓰게 된 '시작'에 대해서 수줍게 고백했다.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꼭 참고 마지막 인사를 내었다. 그때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고마움을 내가 처음으로 썼던 글의 마지막 구절로 대신 전하려 한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리를 쏟아져 나왔다. 1981년 5월 19일 서울,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당연한 하루를 시작한다.'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평온한 하루, 오늘도 푸르른 날이다. 참 보기가 좋다.

社說

여름 성수기 맞은 흑염소 도축료 담합 의혹 묵인못해

전남지역 흑염소 도축업체들이 한 마리(50kg 이하 기준) 당 4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1만 원을 기습 인상했다. 앞서 2021년에도 도축비를 3만5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역시 1만원 올린 바 있다. 건강 보양음식으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농가들은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도는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가들은 전남 소재 도축시설은 2곳 뿐으로 사실상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최대 주산지로 처리 물량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남지역 흑염소 농가는 1천465호로 전국(1만73호)의 14.8%를 점유하고 있다. 사육 두수는 10만8천두로 전국(43만2천두)의 25% 수준이다. 오르지 않는 게 없다고 하지만 전문 시찰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담합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농가들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 비중이 70% 이른다. 도축비가 오르면 국산 흑염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산은 경쟁력을 잃는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타 지역을 이용하는 등 강력 대응을 선언한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전국의 도축시설은 전남 2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인상이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민간업체가 이윤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사안이라든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특히 의혹이 불거진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를 예속시키는 담합 행위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도축업체 또한 설비·인력 유지를 위한 어려움도 있겠으나 갑수록 커지는 농가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늦었지만 자주 소통하면서 합리적 가격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상생의 방안을 슬기롭게 찾길 바란다. 자칫 국산 흑염소 시장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절대 예사일로 넘겨선 안 된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통해 호남 정치력 복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이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 의원은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검찰 독재 음주운전을 범칙 세울 수 없다. 무너뜨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어야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특히 민주주의에도 좋은 보탬이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지역 분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선의 민 의원의 외에도 전북 전주를 지역구 이성운 의원(조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는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해남 출신 최대호 경기 안양시정당도 광주에서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정당을 혁신하겠다고 도전장을 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호남 연고자 3명으로 지지기반이 겹치는 만큼 단일화의 필요성도 분출하고 있다. 일단은 현재 전체 후보군이 최소 12명에서 8명으로 압축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될 전망이다.

호남은 민주당의 뒷받침이 당내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변방으로 추락, 정치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21대 국회 당시에는 양향자 의원만 성공했을 뿐이다. 서삼석, 송갑석 의원은 단일후보까지 나섰는데도 분루를 삼켜야 했다. 지역민들의 상실감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22대 총선때도 그렇고 '잡은 집도끼' 취급이라는 조롱섞인 표현이 나오는 현실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최고위원 선거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호남에서 선출직을 배출할지 관심이 많다. 민 의원은 연일 도전을 공식화한 이재명 전 대표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최고위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두터운 신뢰 관계를 내세운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대통령을 30여년간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한다. 최 시장은 단재장 출신 원외인사가 지도부에 임명해야 한다며 자신감에 차 있다. 일단 누가 예비경선을 통과하느냐. 민주당의 심장 광주가 전당대회를 주시하고 있다. 호남의 자존심이 걸렸다. 지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기고

군민 모두 평생 광(햇빛)·풍(바람) 연금 받자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주민참여형 개발로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해 지역경제에 활성화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구상 화석연료는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반면 햇빛과 바람은 어디에나 있다.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이 다소라도 개선된다. 땅을 파헤쳐 캐낸 석탄과 가스, 석유를 태우는 일을 하루빨리 그만둬야 한다. 땅속 에너지가 아닌 하늘에서 온 에너지를 써야 한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를 늘려가는 일은 지구 열대화가 진행 중인 현 시기 전 인류에게 공통으로 떨어진 과제다. 그래서 영광은 인류 공통의 과제의 답을 자연에서 찾아야 한다. 영광을 포함한 호남지역 모두에서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다. 햇빛연금은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햇빛의 양이 매년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숫자는 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햇빛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햇빛연금은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햇빛의 양은 같다. 국가는 모든 햇빛연금 수급자들의 받는 금액 중 9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나머지 10%를 부담한다. 주민들에게는 지역별로 다르나 해당 지역 주민등록 기준 인구수, 가

구 수, 연령대별 인구비 등을 고려해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중 전남 신안군은 2018년부터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 이익 공유제를 만들어 시행했다. 분기당 수십만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3만8천300여 명의 군민 28%가 받고 있다. 2023년엔 햇빛연금을 재원으로 한 아동수당도 만들었다. 햇빛과 바람이 어디에나 존재하며, 누구나 누려야 할 공유자원을 실효적으로 보여준 국내 첫 사례다. 신안군은 2000년 모든 군민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늦었지만 영광군도 발전사업 이익 공유제를 시행하는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영광군은 최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영광군의 이익 공유제가 이제 일부 독식 구조에서 주민참여 이익 공유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영광군의 미래 비전으로 '재생에너지의 도시, 영광'을 제시한다.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마을발전소 확대를 통해 영광군민이라면 누구나 앞으로 신안군처럼 햇빛연금과 행복바람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안, 제주도보다 더 나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광을 재생에너지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가 행복바람 기본소득이다. 영광 지역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영광군 영해에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GW 단위 사업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영광 해역 외 해상수산부가 담당하

는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GW 단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을 주민참여형으로,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햇빛 기본소득이다. 우리 지역은 일조량이 좋아 태양광을 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또한 주민참여형으로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민간협업형(민간개발사)과 공공주도형(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협업형(민간개발사))으로 영광군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 햇빛 기본소득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영광군에 재생에너지로만(100%) 운영이 되는 'RE100 산단단지' 조성도 영광을 '재생에너지 기술의 전진기지'로 건설해야 한다. RE100 산단에는 혁신 무공해 청정 첨단 농장과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과 소규모 신생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가시화되면 지역 경제, 특히 노동자의 고용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영광군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태양광과 풍력은 인구 5만 봉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공의 가치를 높일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는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현장 중심의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올바른 지도자 선택으로 매일 군민 모두가 기다리는 광(햇빛) 풍(바람) 연금을 받으며 행복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머지않았다. 영광형 행복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독자투고

아직도 생소한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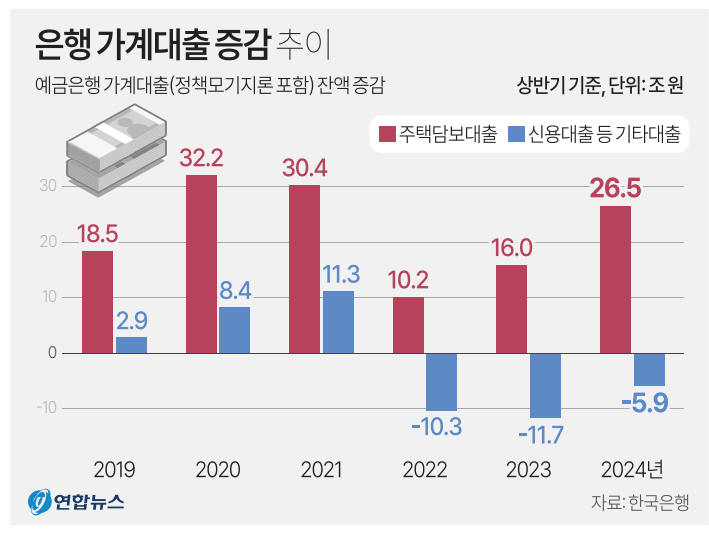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남의 화재는 1만3천 169건이 발생했으며 주택 화재는 2천746건으로 21%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 동안 머무는 대부분의 공간인 ύ터 등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고 정상 작동한다. 하지만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주거 공간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의 잘 이뤄져 있지 않

며 취침 등 휴식을 취하느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2017년 2월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 '절대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시다. 저조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설문을 조사 결과는 소방안전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의식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며 지금 당장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 <최병서·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그래픽 뉴스

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26.5조원 ↑...3년 만에 최대폭 증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정책자금 대출도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7조원 가까이 불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15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천억원) 1년 만에 뒤틀림했다가 4월(+5조원) 반등한 뒤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지난해 10월(+6조7천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였던 5월(+6조원) 수준이 두 달째 유지됐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76조9천억원)이 6조3천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7조4천억원)은 3천억원 줄었다.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천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고, 올해 상반기 증가 규모(+26조5천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천억원) 이후 3년 내 최대 기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해 4조4천억원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5월(+5조3천억원)보다 줄었다. /연남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고 실행요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